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 전문기법 재위촉

정읍시가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조경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총괄계획가로 재위촉했다.

시는 도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위촉된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물 분야 2명, 공공디자인 분야 1명, 경관조경 분야 1명으로 이들은 전문성과 식견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총괄계획가 제도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조경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추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획 및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읍만의 특색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4곳 시상

정읍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회를 통해 환경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에 앞장선 공동주택 4곳을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읍공공실버주택과 수성주공2차아파트를 최우수상으로, 신흥장비2차아파트와 부영2차아파트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기반 종량제를 도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량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RFID 종량제는 카드를 인식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지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 정보를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해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는 약 46개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 이중 32개 단지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순백의 설경 · 고요한 숲길 떠나요

정읍시, ‘내장산365’ 사계절 관광지 브랜딩 본격화… 4季 매력 담은 상품 지속 개발

정읍시가 새해 시작과 함께 내장산 365, 즉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브랜딩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가을 트레킹 상품인 ‘내장산 히든로드(이하 히든로드)’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이달 초 겨울 시리즈인 ‘순백설화(純白雪花), 빙상가설(氷上加雪)’을 출시했다.

코스는 가을 상품인 ‘오색단풍 히든길’, ‘진천유수 히든길’과 같은 코스인 ‘내장산 추령옛길(이하 추령옛길)’과 ‘내장호 둘레길&솔티숲옛길(이하 솔티숲옛길)’이다.

단풍의 대명사인 내장산은 예로부터 압도적인 설국(雪國)으로도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설경 명소다. 골계 뺨은 단풍나무 사이로 펼쳐지는 설경과 순백의 눈꽃을 피운 단풍나무, 비자림과 굴거리나무 군락지의 날카로운 푸른 빛과 눈에 덮인 새하얀 바위



절벽의 어우러짐은 절경이다.

중급난이도의 등산코스인 ‘추령옛길’은 추령을 출발해 장군봉~연자봉~전망대휴게소~내장산&단풍터널~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코스이다.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솔티숲옛길’은 내장산단풍생태공원~내장산조각공원~솔티마루길~솔티숲옛길~방문자센터~내장호둘레길~

내장산워터파크로 이어진다.

두 코스 모두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25일, 27일, 28일, 30일 각 5회씩 운영된다. 예약 및 문의는 승우여행사 홈페이지(www.swtour.co.kr) 또는 유선(02-720-8311)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겨울 상품의 매력은 무엇보다 시와 스타셰프 이원일이 개발한 특화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청년과 함께여는 고창의 새로운 미래”

청년정책 추진… 실효성 있는 주거 · 일자리 · 창업 · 여가 등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청년과 함께여는 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주거, 일자리, 창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본격화한다.

먼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사업 △전북청년활력수당(구직활동수당 300만원 지원) 등이 진행중이다.

또 △전북청년 두배적금(청년자산형성지원)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1년간 최대800만원을 지원하며,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또한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창업 패키지 1월 중으로 3개소를 모집하여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청년 간담회 정책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청년층이 머물고 싶은 지역, 더 나아가 돌아오고 싶은 고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은 고창의 미래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코레일관광개발 가장 많이 간 2024년 여행지 TOP 1위 선정

부안군이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가장 많이 간 2024년 여행지 TOP 1위’에 선정됐다.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2024년 전국 방방곳곳 80여개의 여행상품을 운영하였는데, 부안군이 여행지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결과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재)부안군문화재단 상권활성화추진단이 2023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안관광 여행상품을 시작 한지 2년만의 성과이다.

코레일관광개발 부안(부안노) 특별열차는 청량리역을 출발해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사대전을 거쳐 익산역에 도착하여 연계된 버스를 타고 부안 관광체험 코스로 간다.

부안노(부안노)는 총 4개 코스다. △자연누림 1코스(체석강 내소사) △로컬농부체험 2코스(오디수확체험, 직소폭포길) △로컬푸드체험 3코스(내소사 청자박물관, 오디수확체험) △맛집탐방 4코스(쫄보민노을빛정원, 슬지제빵소) 등 지역 명소와 농촌체험, 로

컬푸드 및 부안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린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권익현 군수는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부안군 곳곳의 대표 관광지와 특색 있는 농촌로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테마 여행상품을 제공하여 관광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영진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부안지역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새만금 7공구 산업단지 전환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면담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5일 서울 하림그룹 본사에서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만나 부안지역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민간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면담은 올해 연말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결정을 앞두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권익현 군수의 절박함과 의지를 김홍국 민간위원장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새만금위원회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부안 앞바다 해상풍력단지과 그린수소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단지로 전환해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며 “산업과 관광, 환경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부안군이 새만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만금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 군수는 “평소 김홍국 위원장께서 ‘새만금 신항을 최대 식품원료, 식품가공, 유통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온 만큼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새만금을 식품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안=김영진 기자

‘지역인재양성 전폭적 지원’

고창군장학재단, 지난해 역대 최대 장학금 3억5300만원 기탁

고창군장학재단이 지난해 역대 최대 장학금 기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16일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에 따르면 지난해 장학금 모금액이 3억5300만원으로 기부자는 118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2023년)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1997년 장학재단 설립 이후 최대 금액이다.

재단은 “삼성전자 분양 확정, 1천만 관광시대 개막 등 지역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액도 대폭 늘었다. 4개

분야(성적우수 · 향상, 특기(예 · 체 · 기능), 농어촌활력, 다자녀가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동안 775명을 선발하고 4억7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과 전주 장학숙을 기존 2인실에서 1인실로 바꾸며 MZ세대 학생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학습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총 241명에게 5억2157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년차를 맞아 대학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최대 3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타지에서도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